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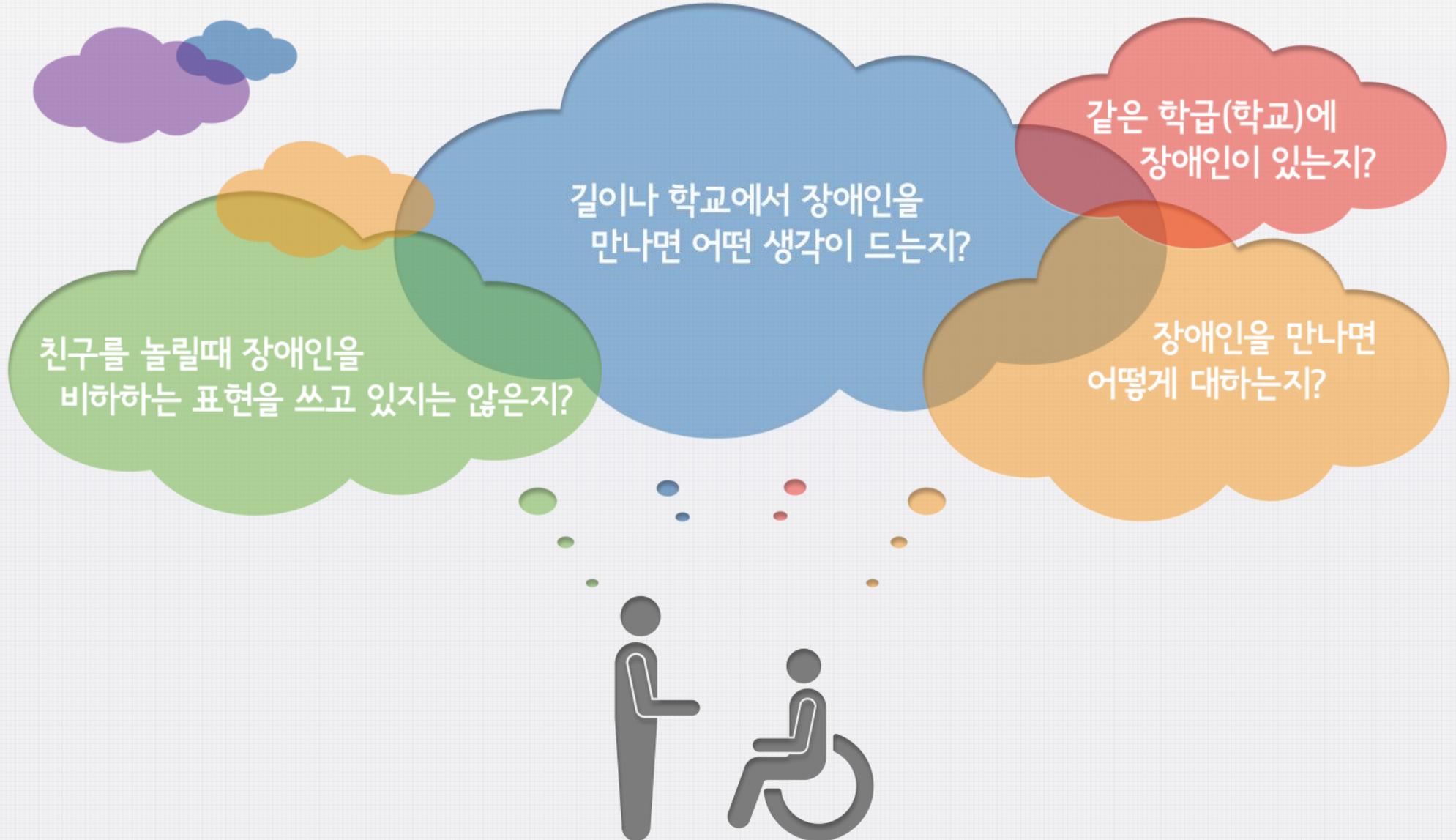
제 36회 장애인의 날 교육자료

#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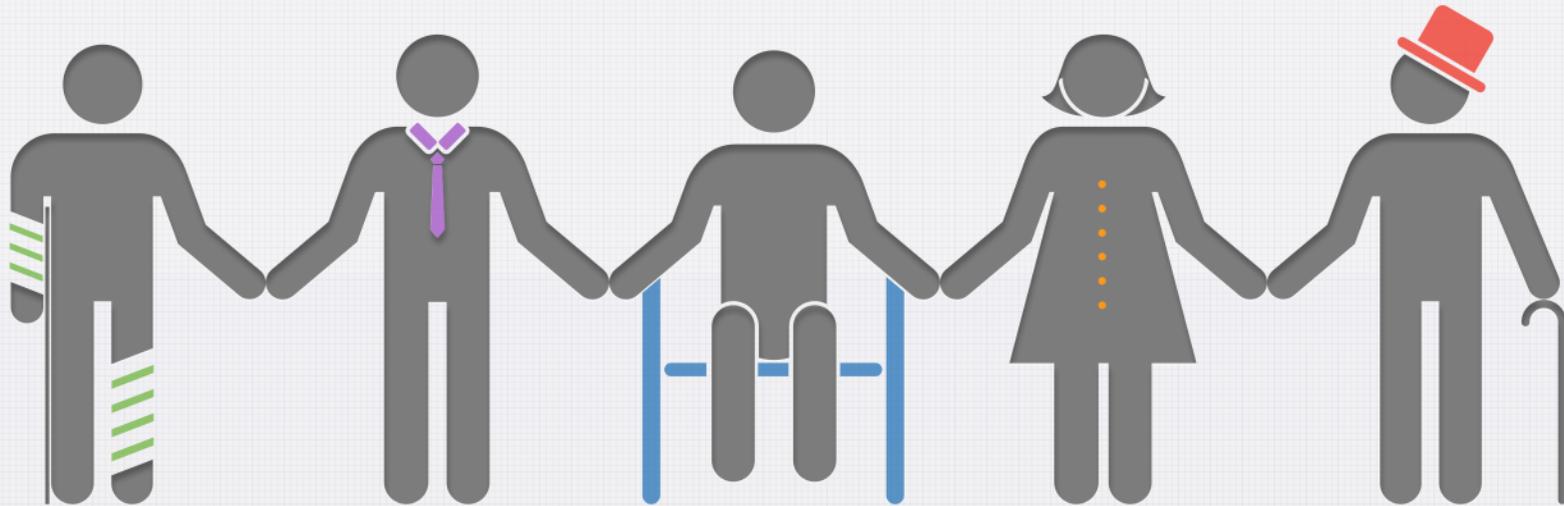




·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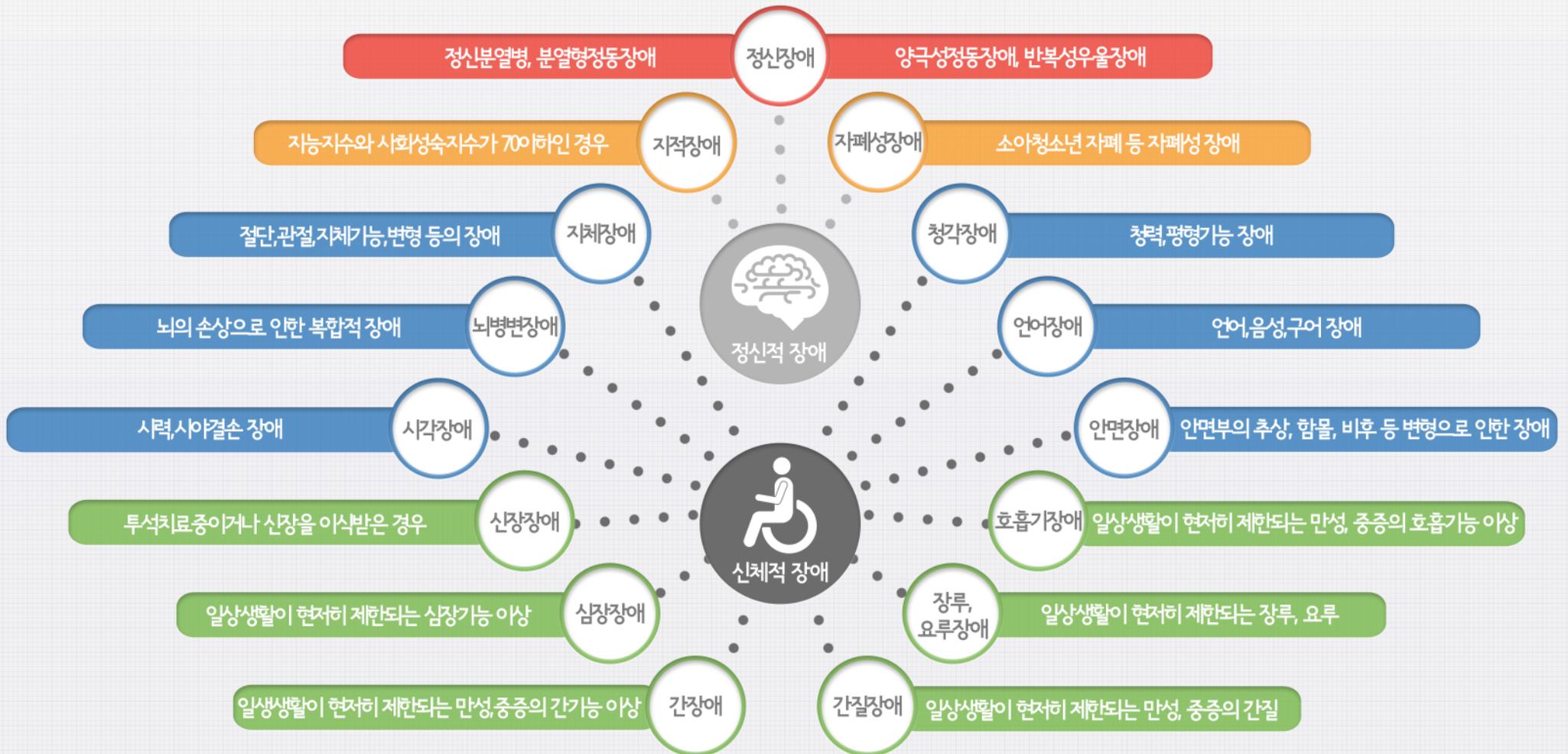


·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


우리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

·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존재.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있지만,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음



- 정신적 장애 {
  - 정신장애
  - 발달장애
- 신체적 장애 {
  -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
  - 내부기관의 장애

장애인의 날



장애인의 날 지정이유: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,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

장애인정책 비전: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"더불어 행복한 사회"

장애인 정책 비

장애인의 정책과 장애인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

다양한 사람들의 조화와 화합을 상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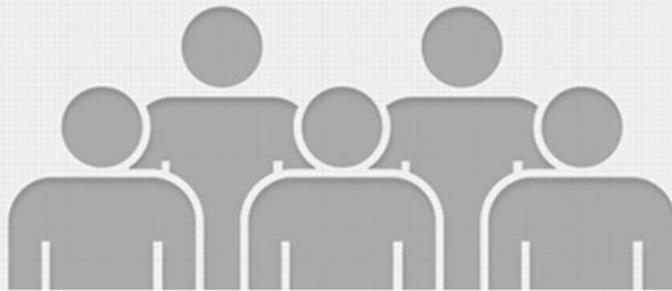


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높은음자리표로 형상화

2016년 연중캠페인

더불어 행복한 사회  
우리함께 맞춰가요

하나. 말할 땐 눈높이를  
둘. 걸을 땐 발걸음을



Q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나요?

X



장애인의 88.9%는 후천성 장애인

Q 장애도 유전이 되나요?

▲



장애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



Q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?



일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,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, 베토벤도 장애인이었음.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

Q 장애인을 '장애우'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?



'장애우'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의미로 90년대 등장한 신조어이며, 장애인은 아기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로 지칭하는게 맞음



Q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?

X



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고,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. 무조건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좋음

Q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?

O



장애가 있든 없든,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

Q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나요?

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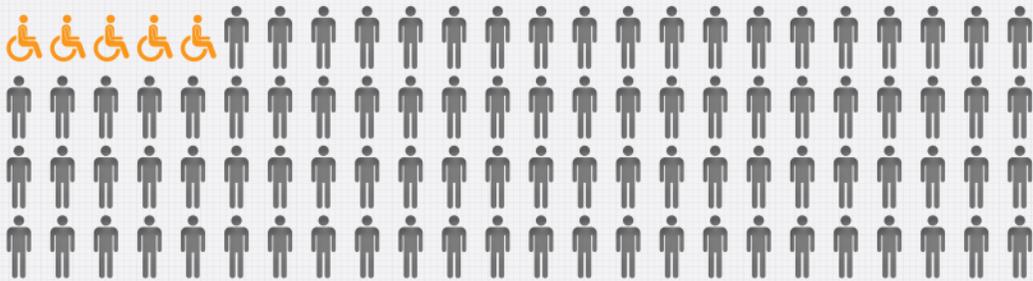


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.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지능은 우리들과 같음

## 1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수

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4.8%(249만명)가 장애인

4.8% | 249만명



## 2 전체 가구수 대비 장애인 거주가구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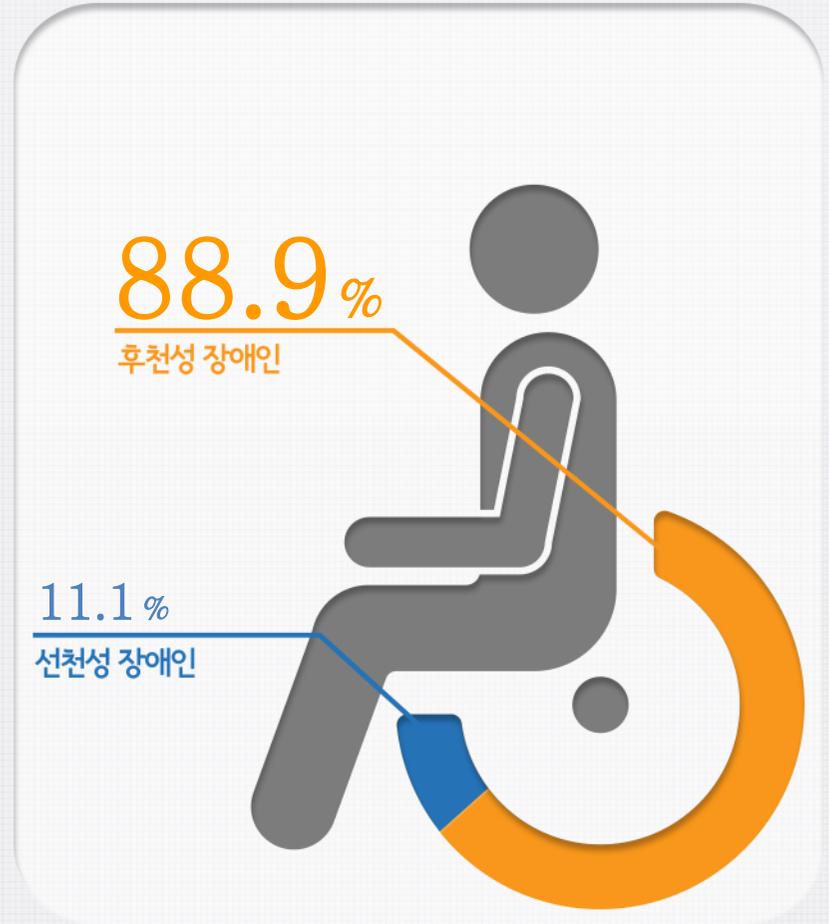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/7가구에 장애인 거주

7 가구 중 1 가구



## 3 선천성 장애 VS 후천성 장애

249만명의 장애인 중 88.9%가 후천성 장애인



장애를 고려하여  
더 배려해야 한다

 66.8%

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 
차별이 많다고 생각한다

 72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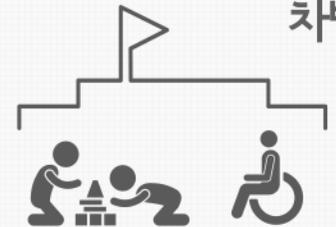


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 
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한다

 65.8%

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 
차별을 경험했다

\* 2번째로 많은 응답

 47.2%

## 1 장애인을 만났을때 에티켓

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,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,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



## 2 바른 언어사용

장애인/ 비장애인이란 표현 사용하고  
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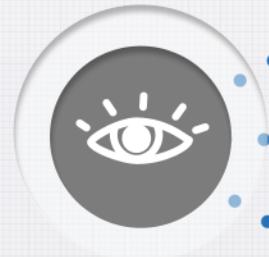


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 
'장애인'이나 '도움반'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





##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



시각장애인



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, “여기”, “저기”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



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,반보 앞에서 걷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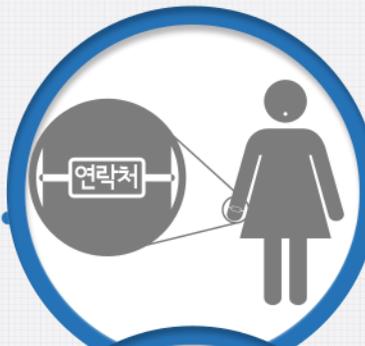
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



##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



지적장애인



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인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,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,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



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,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



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,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

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

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

청각장애인

지체장애인



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 소통을 하기 때문에,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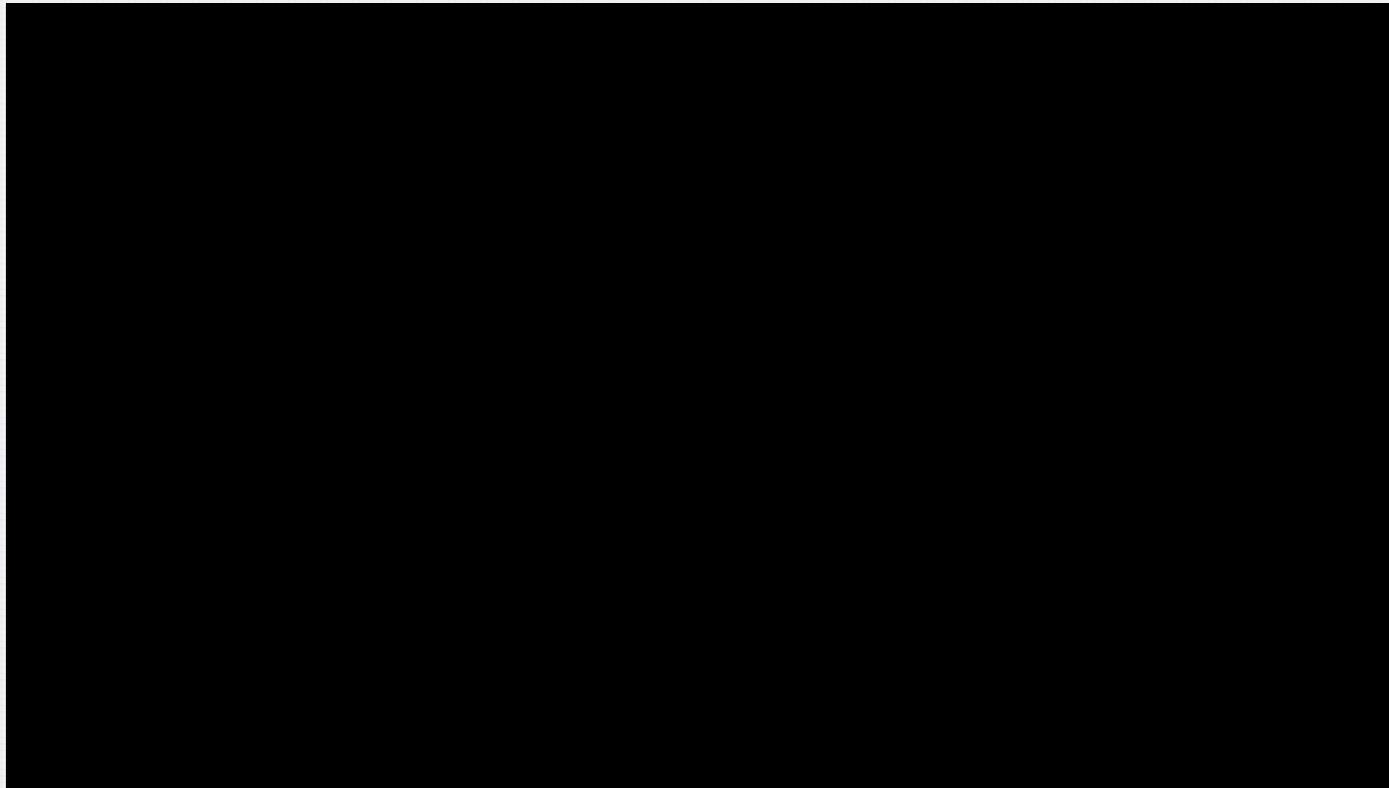
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

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,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

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,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



## “우리는 친구사이”



## 1 시각장애 체험



“눈을 가리고 그림 그리기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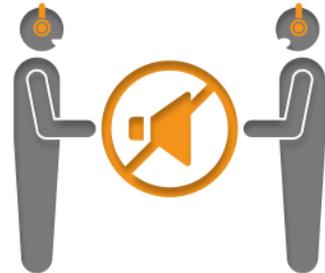


“소리 따라 걸어가기”

## 2 청각장애 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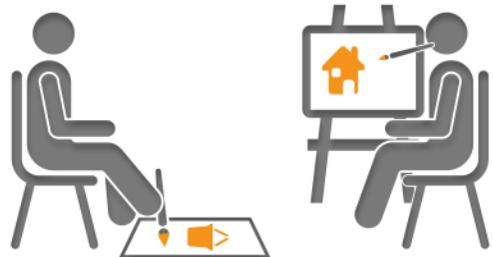


“소리없는 영상물 보고 내용 파악하기”



“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대화하기”

## 3 지체장애 체험



“발가락으로 또는 입으로 그림 그리기”

## 4 학습장애 체험



“거울보고 글 읽기”





더불어 행복한 사회  
우리함께 맞춰가요

하나. 말할 땐 눈높이를  
둘. 걸을 땐 발걸음을

